

한국 대학생 방일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이해 촉진 교류 프로그램(JENESYS2025)’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 30명이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앞으로의 일한 간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방일하였습니다. 방일단은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테마로 도쿄도,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아이치현을 방문하여 각종 시찰, 학교 방문, 교류,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기간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하였습니다.

【참가자】 한국 대학생 총 30명 (단장 1명, 인솔자 1명 포함)

【방문지】 도쿄도,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아이치현 총 30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 학습):

9 월 20 일(토) 대학생 방한단과의 교류 (온라인), 참가자 대외 발신

10 월 11 일(토) 대학생 방한단과의 토론 및 현장 실습, 참가자 대외 발신

10 월 25 일(토)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대학생 방한단과의 교류 (온라인), 참가자 대외 발신

■ 초빙 프로그램:

11 월 5 일 (수) 나리타 국제공항 입국, 【시찰】 하마리큐 온시공원, 오리엔테이션

11 월 6 일 (목) 【강의】 ‘최근 일한 관계’, 【시찰】 영빈관 아카사카리큐,
【시찰】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11 월 7 일 (금) 【학교 방문·교류】 메이지대학

11 월 8 일 (토) 【시찰】 이수현씨 추도·현장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교류】 대학생 방한단 단원과의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발표

11 월 9 일 (일) 사이타마현으로 이동, 【시찰·강의】 고마신사 ‘고려군 건군 1300+10 년을 향하여
~도래에서 미래로’, 고려가주택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야마나시현 이동, 【시찰】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코미 형제 자료관

11 월 10 일(월) 나가노현 이동, 【시찰·체험】 지역 문화 전승 사례 ‘이마다 인형관’,
쇼게쓰안(다도),

【방문·강의】 이이다 시청 ‘미나미신슈의 개요와 매력’,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11 월 11 일 (화) 종일 홈스테이

11 월 12 일 (수) 홈스테이 해산식, 아이치현으로 이동, 【문화체험】 ‘나고야메시’ 만들기 체험

11 월 13 일 (목) 성과보고회(방일 성과·귀국 후 활동 계획 발표),
주부 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p>11 월 6 일 【강의】 외무성 ‘최근 일한 관계’</p> 	<p>11 월 6 일 【시찰】 영빈관 아카사카리큐</p> 
<p>11 월 7 일 【학교 방문·교류】 메이지 대학</p> 	<p>11 월 8 일 【교류】 대학생 방한단 단원과의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발표</p> 
<p>11 월 9 일 【시찰·강의】 고마신사 ‘고려군 건군 1300+10 년을 향하여~도래에서 미래로’</p> 	<p>11월 9일 【시찰】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p> 
<p>11 월 10 일 【강의】 이이다 시청 ‘미나미신슈의 개요와 매력’</p>	<p>11 월 12 일 【교류】 홈스테이 해산식</p>

3. 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대학생

방한단 참가자들과의 활동을 통해 상상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귀국할 때는 교류 시간을 아까워하며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생긴 신뢰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한일 교류의 역사와 깊이 관련된 고마신사와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해 온 발자취를 접함으로써 문화 교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기회가 되었고, 전공 분야가 다른 제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여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외무성 방문과 고마신사에서의 강의를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일본 사회 전체에 스며든 가치관과 인식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일본 현대문화를 접해온 20대 참가자들이 미나미신슈에서의 흄스테이를 통해 지방의 생활과 문화, 일본의 전통 주거와 놀이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흄스테이를 통해 일본 지방의 교육 상황을 직접 알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난초 교육 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마을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견학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해보고자 하는 일본 교육 분야 관련 봉사활동의 방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도시 지역에서의 활동을 재검토하고, 앞으로는 외국인과의 접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지역에서 교류 활동을 진행하여 지방의 아동·학생들에게 한일 우호 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4. 일본족 감상 (발췌)

◆ 방문학교 학생

한국 대학의 재학생과 직접 의견을 교환할 기회는 한정되어 있어, 이번 교류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캠퍼스 투어와 현장 학습도 의미 있었지만, 특히 점심 시간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대기 시간을 활용해 한일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 일본어 학습 동기, 대학에서의 학습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심 메뉴가 일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구성이었다는 점도 교류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교류를 통해 그 매력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에 관심을 가진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의 매력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 나가노현 이이다시 산업경제부 관계자

이번에 나가노현 이이다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가 민박 등을 체험해 보셨는데,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으로 “본격적인 농사일을 하고, 수확해 포장한 채소가 저녁에는 매장에 진열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는 소감이 있었다고 들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의 열정적인 질문을 통해 국가는 달라도 지역 사회를 둘러싼 환경이나 인구 감소, 지방의 과소화(過疎化) 등 많은 공통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극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원함과 동시에, 언젠가 다시 나가노현 이이다시를 방문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 훌스테이 가정

이번에 방문한 네 명의 학생 모두 예의 바르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아,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은 교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훌스테이 기간 중에는 장작 패기나 모과 수확, 아치무라의 고헤이모찌 만들기, 수국 묘목 심기 등 지역 생활과 밀접한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일본어 운용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계기로 일본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들었을 때, 일본 소프트 콘텐츠가 지닌 영향력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한 일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췌), 보도기사 등

 <p>2025년 11월 6일 (Instagram)</p> <p>외무성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방문함으로써 민간 외교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최근 한일 관계에 관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한일 관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관계의 전망도 밝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다. 강의를 들을수록 한</p>	 <p>그들의 기록과 작품, 그리고 한국 장인들과의 교류 협력을 보며 문화라는 거点多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을 느꼈습니다.</p> <p>오늘 하루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연연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p> <p>이런 역사와 마음을 잊지 않고, 서로 한일교류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었습니다.</p>
	<p>2025년 11월 9일 (블로그)</p> <p>오늘은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을 방문하여 그들의 기록과 작품, 한국 장인들과의 교류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문화는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꽂피는 것임을 다시금 느꼈다. 오늘 하루는 (고마신사를 포함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가</p>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췌를 기재함)

<p>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무성 및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교·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일 관계를 배울 기회를 얻었다. ·일본 전통 예술(이마다 인형극)을 접함으로써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넓힐 수 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진행된 교류 사업에 참여한 의의를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언어의 차이가 있음에도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교류를 경험했다. ·가치관과 미래의 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소중함을 실감했다. ·국제 사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했다. 	<p>통해 따뜻한 마음과 정이 전해지는 것을 실감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문화에 뿌리내린 예절과 배려를 접하며 일상 속 작은 행복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인식의 변화’ ·지금까지 일본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단원이 일본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적 이해를 더할 수 있었다. ·과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에 대해 품었던 편견이나 부정적 감정이 교류 경험을 통해 완화되었다.
--	--

【액션 플랜】

- 방한단, 메이지대학, 훌스테이 가정과의 지속적인 교류 유지 및 발전
- JLPT N1 취득을 목표로 한 일본어 능력 향상
- YouTube 및 블로그 등을 활용한 일본 문화 및 교류 성과 발신
- 교류 활동 기록·공유를 통한 한일 상호 이해 및 긍정적 인식 형성
- 한일 청년 협력 프로젝트 기획·실시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유학생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방한단 학생들과의 재회 및 교류 지속
- 도쿄 기업 인턴십을 통한 일본 사회·생활 문화 이해 증진

【액션 플랜】

- 방일 활동 관련 SNS 및 블로그 정보 발신 강화
- 방일 활동 Vlog 및 YouTube 영상 제작·공개
- 한일 관계 관련 뉴스 기사 단체 그룹톡 공유 및 의견 교환 지속
- 번역 앱 활용을 통해 방한단 단원과의 지속적인 언어 교류
- JLPT 등 일본어 능력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 학습 지속
- 일본 대학원 진학 또는 교환 유학 검토
- 서울 소재 아사카와 다쿠미 씨 묘소 참배
- 부산 소재 이수현 씨 묘소 참배
- 양국 발전과 우호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 조사
- 방한단 학생들과의 일본 국내 여행 실시
- 훌스테이 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 유지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